

內國人끼리 접촉 첫 감염

내국인 전대부와 성관계를 가진 청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2차 감염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이 방역당국에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1일 서울에 거주하는 한 청년(21무직)의 외국인 친구 출입하는 서울龍山구梨泰院에서 다우유업소에서 특수업태부와 성관계를 가진 끝에 최근 AIDS 양성반응자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보사부의 따르면 이 청년은 지난 85년 고교를 졸업한 뒤 86년 11월까지梨泰院에서 유출업태부에서 만난 특수업태부와 가끔 성관계를 가졌으며 최근 감염증사를 위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AIDS 양성반응자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이 청년의 외국인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청년은 전대부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梨泰院 자주 찾은 20代

접대부 항체검사 전면 실시키로

이로써 보사부가 확인한 국내 AIDS 양성반응자는 모두 11명이 됐으며 이중 2명이 사망하고 현재 9명이 남아 있다.

李慶雨보사부보좌관장의 청담의 AIDS 양성반응자로 판명된 데 대해 『지금까지 AIDS가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특수업태부에만 전염되곤 했음을 깨고 내국인이 성관계의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는 것이 나타난 사례가 전종서 총재적』이라고 말하며 『특히 이 청년의 많은 이드나 다우유업소에서 이 시간 성관계는 두 하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부가를 따르면 AIDS가 「아프리카」지역에서 대부분 이 시간의 성관계에 의해 구미에서는 동성연애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구미 지역에서도 이 시간의 성관계로 전염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특수업태부의 주로 양성반응자로 나타났고 전과 속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1월 「고베」(神戸)시의 한 유력자가 AIDS 양성반응자로 판명된 것이로 유력자의 출입한 것이 있는 날짜 1만여명의 AIDS 항체검사를 받게 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있었다.

한편 보사부는 이 청년의 감염원인을 밝히기 위해梨泰院에서 특수업태부의 AIDS 감염태조사의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해 대한 항체검사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지금까지梨泰院에서 특수업태부가 우대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관계와 동성연애자들의 한 해 유출업소의 협조를 얻어 1년에 두 차례 AIDS 항체검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들의 의

국인과 내국인을 상대하는 특수업태부가 많고 한 업소의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 완벽 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지 않 전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염 검사를 조사하는 이상 대미 책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中央大 文書장 등 全敎務委員 사퇴

중앙대 文敎總長을 비롯 한 교무위원 32명전원이 최근 이 학교재단인 중앙대학학

